


보도자료		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
배포 일자	2025. 7.10.(목) / 총 3매 (본문 2, 붙임 1)	
자료 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해운물류·해사연구본부 해사산업·안전연구실- 박혜리 부연구위원 (051-797-4629)- 박한선 선임연구위원 (051-797-4627)- 이언경 본부장 (051-797-4638)	
배포 부서	• 성과홍보실(이준철 전임사무원 051-797-4393, 이제영 실장 051-797-4381)	
보도 일시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, www.kmi.re.kr		

한국해양수산개발원,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격운항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제시

- 미래 원격·자율운항선박 운영을 위한 법·제도 정비를 위해 사전 대비할 필요 -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, 원장 조정희)은 『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』(기본연구 2024-17)를 발표하고, 원격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국내 법·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안했다.

본 연구는 국제해사기구(IMO)의 자율운항선박 코드(MASS Code) 도입에 대비하여 국내 법제도를 분석하고, 기술 발전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.

디지털 및 정보통신 기술(ICT) 등으로 해운·조선산업의 발전에 따라 원격·자율운항 등 다양한 운용방식의 선박의 등장과 해상교통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며 미래 선박 운항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안전한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.

연구책임자 박혜리 부연구위원은 “원격운항선박은 기존 해운산업의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.”며 “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제도가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우리 해운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.”고 밝혔다.

본 연구에서는 ▲원격운항선박의 정의 및 법적 지위 확립 ▲미래 선박운항 프로세스의 변화 ▲원격운항을 위한 선박 기술, 안전관리 등의 제도적 개선 등 세

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. 특히, 국제적인 해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법령 개정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.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“원격·자율운항 등 다양한 운항방식의 선박 도입은 해운·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이자 해운산업의 변화를 위한 과제이다.” 고 말하며 “이번 연구가 미래 해상교통환경 변화를 고려한 관련 법·제도의 정비와 정책 개선에 기여하고,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격운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 고 밝혔다.

※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사산업·안전연구실 박혜리 실장(051-797-4629) <hrpark@kmi.re.kr>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보고서 원문 URL <https://www.kmi.re.kr/web/board/view.do?rbsIdx=113&idx=37168>

<붙임1> 지난 2024년 9월 부산에서 열린 해사주간행사 기간 중 개최한 2024 글로벌 첨단해양모빌리티 국제포럼 사진(국제해사기구 IMO 아르세니오 도밍구스 사무총장 오른쪽 11번째)



기본연구

2024-17

선박의 원격운항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

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
for Remote-Operated Ship

박혜리 · 김지호 · 박한선 · 이연경

